

#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의 융합적 관계

이윤주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Gender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Yun-Ju Le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I지역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후 SPSS 24.0 Progra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은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과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의 점수가 높았고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 중 과잉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은 여학생, 23세 이하, 종교가 없을 때, 성차별 경험이 있을 때, 가족, 친척 또는 친구 중 성소수자인 사람이 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부민감성은 여학생일 때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하위요인 중 자기성찰과 거부민감성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자기성찰을 제고하기 위해 거부민감성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거부민감성, 성인지 감수성, 관계,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ensitiv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From August 26 to September 4, 2022, a survey was conducted on 180 people attending nursing university in I Metropolitan city, and then analyzed using the SPSS 24.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nursing students' gender sensitivity had a high score of openness to gender identity and openness to gender roles, and overreaction was high among the sub-factors of rejection sensitivity. The gender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when female students, under the age of 23, without religion, experienced gender discrimination, and when there were LGBT people among family, relatives, or friends. In addition, rejection sensitiv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only when female students. Finally, among the sub-factors of gender sensitivity,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rospec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order to improve the introspection of gender sensitivity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education or programs on rejection sensitivity.

**Key Words** : Nursing student, Rejection sensitivity, Gender sensitivity, Relationship, Convergenc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건강과 의료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면서

보건 정책과 실행에 있어 성 인지 관점에서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거론되면서 다양한 학습을 통해 이를 인식해 나가는 것이 기회들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1]. 성인지 감수성은 1990년 중반에 일

\*Corresponding Author : Yun-Ju Lee (daminzimin@naver.com)

Received November 17, 2022

Accepted December 21, 2022

Revised November 30, 2022

Published December 30, 2022

상에서 실제적인 성차별을 줄이고 성평등의 확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등장하여[2]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여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시도하면서 성인지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3].

성인지 감수성은 성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감지하는 성향으로 성별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그로 인한 영향이나 성 관련 불평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4]. 특히, 대학생 시기에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제시되고 있다[5].

의료기관내 성차별이 존재하고[6] 사회적으로 성적 소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파악의 부족,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부정적 태도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7]. 의료 영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성역할 인식이나 성차별적 태도가 간호를 수행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돌봄문화를 건강하게 촉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8]. 이에 간호대 학생들이 간호사로서 현장에 나가기 전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소수자에 대한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간호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필요하다.

국내 간호학과 4학년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중 경험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18%의 학생들이 이를 경험하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성 민감도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9]. 또한, 간호학과에 남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간호교육과 실습 영역에 있어 성 편견에 대한 성별의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10,11].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 중 여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교육 경험 등 일반적 특성을 추가한 반복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은 주로 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성 태도[13,14], 성 지식[14], 심리 사회적 성숙도[13]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지 감수성은 대인관계를 통한 경험에서 성차별이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4], 간호대 학생들의 개인적 속성에서 대인관계에 연관되는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미리 이를 걱정하고 불안해 하며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15]. 거부민감성이 높은 간호대 학생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복감이 감소하면서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16]. 이런 점을 살펴볼 때, 간호대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 성차별이나 성평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부민감성과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개인 변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며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 정도를 확인한다.
- 2) 간호대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I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하반기 개강 전 대면 설문이 불가능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연구 설명문과 구글 설문 링크 주소를 게시하였다. 간호대 학생들은 설명문을 충분히 읽어 이해를 하고 동의 후 구글설문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강이 된 후에는 대면 설문조사 방법도 병행하여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배포하고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에게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효과크기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1-β) 0.95으로 했을 때 164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자를 예상하여 총190부 배부하여 18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 5부를 제외한 180부를 분석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2.1 성인지 감수성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은 Lee[4]가 개발한 총 31문항의 젠더감수성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는 4개의 하위요인인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7문항), 자기성찰(8문항), 비폭력(7문항),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된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이었다.

### 2.2.2 거부민감성

연구참여자의 거부민감성은 Park과 Yang[17]이 개발한 16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4개의 하위요인인 예기 분노 5문항, 예기불안 4문항, 과잉반응 4문항, 거부지각 3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 5점이었으며 최소 16점에서 최대 8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alpha=.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이었다.

## 2.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대면 또는 비대면 방법으로 제공된 연구설명문을 충분히 읽고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하였다. 연구설명문에는 연구 제목, 무기명, 언제든지 철회 가능, 소요시간, 불이익이 없음과 연구 책임자 연락처 등을 수록하여 필요시 질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대면 경우 연구참여자의 수고에 대한 보답을 위한 목적으로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고자 동의하는 경우 참여자의 핸드폰을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그 경우 당사자에게 모바일 키퍼쿠폰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면시 설문조사에서는 소정의 사은품(간

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자유로운 응답을 위하여 연구자는 강의실 밖에서 기다린 후 설문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동의서와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수거된 설문지는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코드화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된 후 모든 자료를 폐기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4.0 Program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은 빈도와 백분율이나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연속변수인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Pearson correlation를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 정도

본 연구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은 문항 평균 3.2점이었으며 거부민감성 문항 평균 2.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성인지 감수성의 문항 평균은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3.3점,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 3.3점, 비폭력 3.2점, 자기성찰 3.1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별 거부민감성 문항 평균은 과잉반응 2.9점, 거부지각 2.8점, 예기분노 2.6점, 예기불안 2.4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gree of research variables (N=180)

Characteristics	Item M±SD	Min.	Max.
Gender sensitivity	3.2±0.55	1.7	4.5
Sexual identity	3.3±0.92	1	5
Self-reflection	3.1±0.57	1	4.3
Non-violence	3.2±0.60	1.9	5
Openness to gender roles	3.3±0.74	1.4	5
Rejection sensitivity	2.7±0.69	1	4.9
Anticipated rage	2.6±0.93	1	5
Anticipated anxiety	2.4±0.83	0.8	5
Overreaction	2.9±0.84	1	5
Rejection perception	2.8±0.90	0.7	5

### 3.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

본 연구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은 여학생( $t=6.16, p<.001$ ), 23세 이하( $t=3.50, p=.001$ ), 종교가 없을 때 ( $t=2.29, p=.023$ ), 성차별 경험이 있을 때( $t=-2.63, p=.010$ ), 가족, 친척 또는 친구 중 성소수자인 사람이 있을 때( $t=2.97, p=.003$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학년이나 성 관련 교육(대면 또는 동영상) 경험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이나 거부민감성의 점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거부민감성은 여학생( $t=3.56, p<.001$ )일 때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3.3 연구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의 상관관계

본 연구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간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의 하위 요인 중 자기성찰과 거부민감성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35, p<.001$ ). 성인지 감수성의 하위요인인 비폭력은 거부민감성의 예기분노와 상당히 약한 상관관계( $r=-.19, p<.05$ )를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2. Comparison of gender sensitiv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0)**

Variable	Categories	n(%) or M±SD	Gender sensitivity			Rejection sensitivity		
			Item M ±SD	t	p	Item M ±SD	t	p
Gender	Female	151(83.9)	3.3±0.50	6.16	<.001***	2.8±0.67	3.56	<.001
	Male	29(16.1)	2.7±0.51			2.3±0.70		
Age(years)	≤23yrs	105(58.3)	3.4±0.50	3.50	.001**	2.7±0.71	1.11	.268
	≥24yrs	75(41.7)	3.1±0.58			2.6±0.66		
Grade	Junior	58(32.2)	3.3±0.57	1.04	.299	2.8±0.71	.97	.336
	Senior	122(67.8)	3.2±0.54			2.6±0.68		
Religion	No	136(75.6)	3.3±0.56	2.29	.023*	2.7±0.71	-.17	.866
	Yes	44(24.4)	3.1±0.50			2.7±0.64		
Sex education	No	37(20.6)	3.2±0.50	-.10	.921	2.7±0.74	.49	.622
	Yes	143(79.4)	3.2±0.56			2.7±0.68		
Sexual discrimination	No	59(32.8)	3.1±0.46	-2.63	.010*	2.7±0.72	.29	.773
	Yes	121(67.2)	3.3±0.58			2.7±0.68		
Gender minority among family, friends etc.	No	112(62.2)	3.2±0.51	-2.97	.003**	2.7±0.73	.84	.403
	Yes	68(37.8)	3.4±0.58			2.6±0.63		

\* $p<.05$ , \*\* $p<.01$ , \*\*\*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gender sensitiv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of participants**

Variable	1-1	1-2	1-3	1-4	1	2-1	2-2	2-3	2-4	2
	r									
1-1 Sexual identity	1									
1-2 Self-reflection	.39***	1								
1-3 Non-violence	.43***	.11	1							
1-4 Openness to gender roles	.67***	.48***	.52***	1						
1 Gender sensitivity	.85***	.63***	.64***	.90***	1					
2-1 Anticipated rage	-.03	.25**	-.21**	-.02	.00	1				
2-2 Anticipated anxiety	.16*	.32***	-.05	.14	.19*	.38**	1			
2-3 Overreaction	.13	.26***	-.14	.12	.13	.38***	.53***	1		
2-4 Rejection perception	.05	.23**	-.11	.12	.10	.39***	.43***	.50***	1	
2 Rejection sensitivity	.09	.35***	-.18*	.18	.13	.76***	.75***	.78***	.73***	1

\* $p<.05$ , \*\* $p<.01$ , \*\*\*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과 거부민감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성별 비율은 여학생이 8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조사한 Yang, Cho와 Baek의 연구[14]보다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남학생의 비율이 25%정도인 Kim과 Kim의 연구[13]에 비해서는 낮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정도는 3.2점으로 Yang, Cho와 Baek의 연구[14]의 2.99점보다 높았고, Kim과 Kim[13]의 3.89점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23세 이하인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점수가 높았는데, Kim과 Kim[13]의 연구에서 20세~24세 이하가 80%를 차지한 것을 볼 때 연구에 참여한 연령의 영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하위요인을 살펴볼 때, 다른 요인에 비해 정체체성에 대한 개방성과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조사한 연구[18]에서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이 가장 높고 정체체성에 대한 개방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이런 결과는 대학생이 되기까지 학습해 온 경험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중학생의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내용을 분석한 연구[19]를 보면, 성역할,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변화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민주적인 가족관계에 다루고 있다. 더욱 2000년 이후 성소수자의 경험, 그들에 대한 인식이나 정신건강 등에 대한 연구들이 다각도로 진행되면서[20] 지식으로 공유되는 과정을 통해 정체체성에 대한 개방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정도는 2.7점으로 Lee와 An의 연구[16]의 점수와 일치하였으나 하위요인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과잉반응의 점수가 높은 반면, Lee와 An의 연구[16]에서는 예기분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 진행된 시점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기분노는 거부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정서적 측면이고 과잉반응은 거부상황에 대한 기피로 행동적인 측면에 해당되는데[17], Lee와 An의 연구[16]의 연구는 COVID-19이전 다양한 방식

으로 대인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대면 과정에서의 정서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상당한 대인관계의 기회가 줄고 간호대학생의 가장 큰 대면의 기회인 교육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행동적 측면인 과잉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와 성인지 감수성 점수가 동일하게 나온 Woo와 Yoo[21]의 연구에서 여학생이거나 종교가 없을 때 점수가 높게 나타난 점은 일치하였으나 연령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에서 남학생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학생이 많고, 임상현장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간호대학의 남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는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자유롭게 성차별이나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는데, 인간 심리의 이해 또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술을 포함한 인문사회교과목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며 관계를 함에 있어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역할극 등의 방법을 통해 실제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성인지 감수성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성소수자들과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만났을 경우 보다 긍정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제고에 있어 성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완성도 높은 영상자료를 시청한 후 디브리핑하는 시간을 통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은 성 관련 교육 수강여부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가 없는 것은 Yang, Cho와 Baek의 연구결과[14]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관련 교육을 대면 또는 동영상으로 들은 경험의 간호대학생의 비율이 약 80%정도였다. 이는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양성평등 정책을 계획하여 학교운영 기반 구축하고 고등교육 실시를 강화하면서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22]. 하지만, 성 교육 경험이 성인지 감수

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규모 방식의 교육을 지향하고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한 소그룹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의 변화 과정을 연구한 연구[23]에 따르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향상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태도가 확장되었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성인지 감수성의 하위요인 중 자기성찰은 거부민감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성인지 감수성의 하위요인과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Lee와 Kim[18]의 연구에서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간호대학생들은 4년간의 교육과정에서 이론교과목에서 진행되는 조별과제 또는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인관계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대학생의 거부경험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에서 불편감을 줄 수 있고[17] 이는 성인지 감수성의 자기성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성차별이나 성평등에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을 방해할 수도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COVID-19로 인한 감염병 대유행이 종식이 될 경우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 간호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하위요인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은 여학생, 나이가 24세 이상, 종교가 없을 때, 주변에 성소수자들이 있는 경우 높았으며 이들의 거부민감성은 성별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의 하위요인 중 자기성찰과 거부민감성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제언은 단일 지역에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연구 결과를 일반화함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과 거부민감성과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관련성 있는 변수를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비정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성인지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M. Miers. (2002).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gender sensitive care: exploring concepts and knowled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0(1), 69-77. DOI : 10.1046/j.1365-2648.2002.02341.x
- [2] P. L. Bowden. (1992). *Caring: an investigation in gender-sensitive ethics*. Doctoral dissertation. McGill University, Quebec.
- [3] J. S. Joo, D. K. Yoon, S. M. Jung & C. S. Song. (2018). *2018 Engendering National Statistics in Korea*. Seoul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4] J. Y. Lee. (2011). *A study on developing gender sensitivity measurement*.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5] E. Drew & S. Canavan. (2020). *The Gender-Sensitive University: A Contradiction in Terms?* (p. 208). New York : Taylor & Francis.
- [6] C. Kouta & C. P. Kaite (2011). Gender discrimination and nursing: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7(1), 59-63. DOI : 10.1016/j.profnurs.2010.10.006
- [7] Y. J. Lee (2022). A study on the health research of sexual minorities in Korea.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8(1), 67-74. DOI : 0.14370/jewnr.2022.28.1.67
- [8] J. J. Aliri, S. Prego-Jimenez, O. Goñi-Balentiaga, E. Pereda-Pereda, J. Perez-Tejada & A. Labaka Etxeberria. (2022). Gender awareness is also nurses' business: Measuring sensitivity and role ideology towards patient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DOI : 10.1111/jonm.13866

- [9] S. K. Lee, J. E. Song & S. Kim (2011).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of Korean nursing students. *Asian Nursing Research*, 5(3), 170-176. DOI : 10.1016/j.anr.2011.09.003
- [10] S. Chandana & M. Hettiarachchi. (2013). Educational environment of nursing undergraduates in University of Ruhuna: effect of gender. *Journal of the University of Ruhuna*, 1(1). DOI : 10.4038/jur.v1i1.6155
- [11] M. Kim, S. Cho & G. S.J. Jeon. (2014). Barriers and Strategies to Adaptation among Korean Male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3), 109-119. DOI : 10.17547/kjsr.2014.22.3.109
- [12] E. J. Seo (2019). Difference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gender sensitivity according to their variables. *The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1, 17-26.
- [13] K. S. Kyung & M. A. Kim. (2022). The Effects of Psychosocial Maturity and Sexual Attitude, on Gender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6(2), 345-353. DOI : 10.33097/JNCTA.2022.06.02.345
- [14] Y. M. Yang, M. O. Cho & K. H. Baek. (2021). The effect of sexual attitude and sexual knowledge of nursing students on gender sensitivi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6), 55-63. DOI : 10.22156/CS4SMB.2021.11.06.055
- [15] G. Downey & S. Feldman.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70, 1327-1343
- [16] Y. J. Lee & S. Y. Ahn.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3), 371-379. DOI : 10.15207/JKCS.2021.12.3.371
- [17] G. M. J. Park & N. Yang. (2017). Validation of Rejection Sensitiv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1), 103-127
- [18] S. J. Lee & E. Y. Kim (2022). The Role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Gender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Date Violence: Focused o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Women Psychology*, 27(1), 1-21
- [19] J. S. Yang & S. E. Ju (2019). Contents analysis on gender equality in home life field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of 2015 revi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5(3), 83-106. DOI : 10.29113/skpaer.2019.25.3.006
- [20] M. Namkoomg & J G. Park (2020). A content analysis: Research on sexual minorities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3), 1469-1498. DOI : 10.23844/kjcp.2020.08.32.3.1469
- [21] C. H. Woo & S. Y. Yoo (2021). The Effects of the Gender Sensitivity, the Gender Role Confli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2(3), 41-54. DOI : 10.351133/kssche.20210831.04
- [22] Ministry Gender Equality & Family. (2015). *The 1st Basic Plan for Gender Equality Policy (2015-2017)*. Seoul : Ministry Gender Equality & Family
- [23] N. Shin, J. Shin & S. M. Han (2021). A study on processes of change in gender sensitivity: College students' group counseling experienc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3), 1363-1384. DOI : 10.22251/jlcci.2021.21.3.1363

## 이윤주(Jieun Song)

##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의료사 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우울, 정신건강, 자살, 대인관계, 직장내괴롭힘
- E-Mail : daminzimin@naver.com